

# 농업인 스스로의 안전관리 첫걸음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검팀 김효철 063-238-4166



안전사고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소규모 자영농에 있어서 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안전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나 재활이 어렵고, 결국 노동력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인의 자발적이며 지속적인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사고 예방은 작업 도구 정리와 안전표지 부착과 같은 조그마한 실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농업인 스스로 가능한 변화를 만들 때 안전관리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 ♡ 자발적인 안전관리의 원칙 ♡

### ❖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부터 시작하자

-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이 문제가 될 경우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기술이나 자재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 ❖ 다른 농업인의 아이디어를 배우자

- 귀농·귀촌자의 경우 이웃이나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조언을 받아 안전관리 개선을 하도록 한다.

### ❖ 단계적인 작업 환경 개선

- 처음에는 비용 부담 없이 실천하기 쉬운 보호구 착용, 편이장비 활용, 통로 정비, 농약의 분리 보관·폐기, 안전작업 절차 준수 (농기계 정비 시 시동 끄기) 등을 수행한다. 다음으로는 경운기, 전동운반차, 도구, 시설물 등과 같이 농장에 있는 기계·설비 등에 대한 청소, 유지, 점검, 성능향상 개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전기 설비 교체, 작업장 난간 및 경사로

설치 등을 한다.

### ∞ (사례) 손도구의 정리정돈 ∞



- 급한 작업을 할 경우 필요한 손도구를 찾지 못하여 맨손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때 손의 부상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 손도구를 상자 등과 같이 제대로 된 보관함에 정리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손도구를 찾기 위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 손도구는 별도의 걸이대를 마련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다. 정리정돈을 통하여 작업에 필요한 손도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걸이대에 이름표를 부착할 경우 정리 효율성이 높아진다.

### ∞ (사례) 안전표지의 활용 및 점검 ∞



- 농기계와 시설을 구매할 경우 구동부, 회전체가 있는 곳에 안전표지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안전표지가 없는 곳에는 주변 환경에 대비하여 눈에 잘 띄는 색(빨간색 등)으로 위험 표지를 붙여 손쉽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 조명 스위치, 농기계 멈춤 스위치에도 비상시에 쉽게 작동 할 수 있도록 위치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안전표지는 손상되면 효과가 없어지므로, 주기적으로 표지판의 파손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 ∞ 안전관리 점검과 안전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수행 ∞

- 농기계,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기록을 남긴다. 방제복, 마스크, 신발 등은 오염 및 파손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며 안전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http://farmer.rda.go.kr>)를 확인하거나, 전국농업안전보건센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등에 문의하도록 한다.